

전주, 올해 바이오기업 유치 총력

바이오 분야 우수 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도 집중

전주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24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력 입주기업 모집(2차)과 연계해 '바이오기업 유치 집중주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만의 기업친화적 첨단바이오 생태계를 담은 기업유치 제안을 마련해 의료기기 주력 기업과 바이러스 치료제, 디지털 바이오 등 수도권 내 기업들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월 중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분사와 생산시설, 연구소의



전주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바이오 인프라 구축 및 입주시설 확보를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첨단바이오 분야 R&D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바이오 기업 맞춤형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특히 시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전국 유일 3, 4등급 중재 의료기기 지

원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 전주시 주력산업인 탄소소재 등 신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글로벌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개관한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전북대학교 내 산학융합플라자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기업친화 입주 공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추진 중인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 선도기업을 발굴 및 유치하고, 전주시가 지향하는 소재 중심의 혁신의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공급을 충족할 수 있는 바이오

분야 우수 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는 바이오 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역량 있는 바이오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이젠 오는 기업이 청년의 지역 정주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이전 기업 지원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첨단바이오 분야 6개 기업을 전주첨단벤처단지로 유치했으며, 이들 기업은 주력산업 확장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만 30여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고부가가치 의료 제품생산·판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옥기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24일 2025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30명에게 모두 27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학생과 가정에 힘과 위로가 되길”

전건협 전북, 장학금·장학증서 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24일 전주 전문건설회관에서 '제29회 전문건설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2025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30명(고교생 11명, 대학생 19명)에게 모두 2,7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회원사 임·직원과 장학생 및 학부모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날 수여식에서 임근홍 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불안한 국내외 경제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어 "비록 더디게 느껴지는 속

도라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 굳은 의지를 갖고 꾸준히 매진하면 반드시 보람된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로 학생들을 응원하며, "지금 하고 있는 학업과 노력들이 훗날 큰 성과로 돌아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함으로써 개인의 성공은 물론 지역과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응원한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희망나눔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회원사 임·직원 자녀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건설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1,259명에게 11억1,53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김제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42억원 규모 금융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4일 김제시청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김제시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42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희욱 김제부시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본부장, 전북은행 김범식 김제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1억5,000만원을 특별출연하고, 총 42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26일부터 상담접수를 시작하는 김제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운전자금 최대 5,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사업은 지난해 도내 7개 자치단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였으며, 올해도 8개 자치단체와 협약을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건단련·우범기 전주시장, 전북 건설산업 간담회 개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

전북 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24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북 건설산업 협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재철 회장은 "국내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속 발주물량 감소,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란 극한의 상황에 직면해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도시인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할 발주를 우



선 검토하고, 전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주종합경기장 전신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왕의공원 프로젝트 사업 옛 대한방직터 부지개발사업 등에 지역 건설업체가 적극 참여하여 개발 이익이 온전히 지역경제에 돌아가도록 지역업체 참여 제고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며 지역경기 부양 기반시설 공급, 성장기반 제공의 역할을 하기에, 오늘 전달받은 각 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건설경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적극 감안하겠다"고 말하며,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전주시의 공공분야와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와 참여를 제고 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 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되어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농협 전북검사국, 윤리경영 실천 결의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국장 김삼형)은 최근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전북검사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와 혁신을 통한 희망농업·행복농촌 구현을 위해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작성하고,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임직원 역량 집중 △범국민 쌀 소비 촉진운동 확대 △부

정한 외부 청탁 근절로 청렴농협 구현 △법령과 제 규정 준수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다짐했다.

한편 전북검사국은 윤리경영을 위해 매월 행동강령 준수 캠페인 활동 및 임직원 준법 자기검증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전북검사국 김삼형 국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희망농업·행복농촌'



구현 위해, 우리 검사국 직원이 앞장 서겠으며, "농·축협 종합감사시에도 윤리경영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도하여 농업인과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농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탄소산업진흥원 창업도약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경민)은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탄소 융·복합소재를 비롯해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3~7년차) 창업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평균 1.3억원)과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19일 오후 4시까지 K-Startup 누

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주관기관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을 선택하면 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16년부터 10년째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총 283개의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해왔으며, 탄소 융 복합소재 분야에 특화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해왔다.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교육동 3층에서 개최되며, 현장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업활성화실(063-219-3873~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